



www.at.or.kr

홍콩 농식품 수출품목 소매가격조사 3월



김



음료류



주류



제과류



면류



소스류



기타 가공식품



신선식품



3월 품목 및 원산지별 소매 가격 분석 - 홍콩



1. 김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김 중량(1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2. 음료류 (과채 주스)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과채 주스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3. 면류 (라면)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라면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4. 주류 (소주)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소주 중량(100ml)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5. 제과류 (비스킷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비스킷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6. 소스류 (장류)

최고가, 평균가, 최저가

1) 원산지 별 장류 중량(100g) 당 가격 비교

(단위 : 원)



※ 홍콩 달러의 경우 원화 환산 시 KEB하나은행 3월 21일자 기준으로 작성, 1달러 = 143.66 원

1~3월 월별 소매 가격 변동 추이 분석 - 홍콩



1.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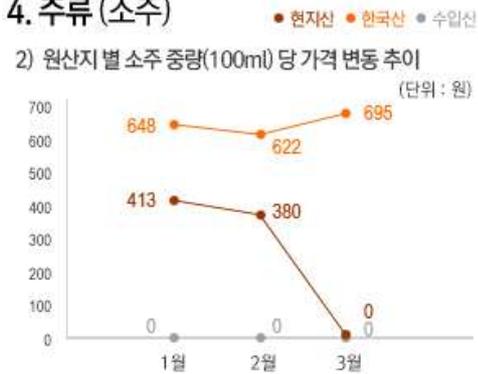
2. 음료류 (과채 주스)



3. 면류 (라면)



4. 주류 (소주)



※ 3월의 경우 해당 수입 품목 조사되지 않음

5. 제과류 (비스킷류)



6. 소스류 (장류)



음료류

수요 감소 ▼ “ 비싼 가격과 생소한 맛으로 인기 하락 중인 선식제품 ”

1986년 개업하여 2001년부터 일본과 한국 식품을 수입, 유통 중인 미사유한공사(美仕有限公司)의 마케팅 담당자 Ms. Wong에 따르면 선식제품의 인기가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수요 감소의 원인으로 맛과 가격대를 꼽았다. 첫째로 선식제품의 맛이 홍콩 고객들에게 생소하기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자사에서 판매중인 선식의 경우, 아침 식사대용으로 먹기에는 가격이 비교적 비싼 편이기 때문이라 수요가 오르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곡물선식]

수요 상승 ▲ “ 홍콩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유자차 ”

홍콩에서 대형마트와 레스토랑에 제품을 유통 중인 명방(홍콩)유한공사(明邦(香港)有限公司)의 레스토랑·호텔 영업부 Ms. 니는 유자차의 인기가 상승 중이라고 전달했다. 그녀는 유자차의 인기상승 비결은 바로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은데 있다고 전했다. 유자차를 마셔본 고객들이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에 호평을 보낸다면,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사시사철 따뜻한 차를 즐겨 마시는 홍콩 여성들의 특성 또한 유자차 판매량 상승에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산 유자차]

스낵류

수요 상승 ▲ “ 달콤한 맛과 한류 여파로 사랑받는 허니버터칩 ”

홍콩에 10개의 분점을 가지고 한국, 일본, 태국 등지에서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송전상사(홍콩)유한공사(松田商事(香港)有限公司) 한국식품 수입부 담당자 Ms. Liang에 따르면, 해태제과사의 '허니버터칩'의 판매량이 꾸준히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홍콩 소비자들에게 한국 문화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국산 제과류에 대한 관심은 항상 높지만, 일회성으로 인기가 식는 제품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허니버터칩'은 특유의 맛으로 재구매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하며, 홍콩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품은 홍콩에서도 수요가 높은 편이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중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한국산 판매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태제과사 허니버터칩]

면류

수요 상승 ▲ “ 면과 소스의 믹스매치로 ‘인기 폭발’ 우동제품 ”

2000년도에 설립되어 홍콩에서 수입식품을 유통하고 있는 명방(홍콩)유한공사(明邦(香港)有限公司)의 레스토랑·호텔 영업부 Ms. Li는 홍콩 내 우동제품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면과 소스가 따로 제공되는 우동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며, 조리가 간편하고 소스량을 조절하여 개인의 입맛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소스를 매운맛, 짠맛, 담백한 맛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맛을 추구한 것 역시 인기몰이의 비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한국 제품도 기존의 간장뿐만 아니라 XO소스 등 홍콩 소비자가 좋아하는 맛을 추가한다면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XO소스 우동제품]

가격 상승 ▲ “ 공급가격 상승으로 소매가격이 상승한 한국 라면 ”

홍콩에서 25년간 각종 식품을 수입 및 유통하는 송전상사(홍콩)유한공사(松田商事(香港)有限公司) 한국식품 수입부 담당자 Ms. Liang은 지난 인터뷰에서 한국 라면의 가격이 오를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그녀는 작년 말부터 한국 라면 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달 제조업체에서 실제 상향조정된 가격을 통보했다며, 이에 맞춰 소비자가 추가적으로 상승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가격이 인상되는 라면은 농심사 제품으로 알고 있다며 라면 값 상승에 의한 매출변동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농심사 라면]

조미김

수요 상승 ▲ “ 평균가 상승으로 가격 상승세를 이어가는 조미김 ”

채식 및 건강 보조식품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Vegelink의 마케팅 담당자 Mr. Mak에 따르면 한국산 조미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그는 올해 한국 김이 풍작이라고 들었지만, 작년 흉작의 여파로 상승되었던 평균 가격이 아직까지 하락하지 않아 김 가격이 상승세를 띄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 조미김]